

9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해마다 환절기 이후에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더위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농장의 방역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9월로 접어들게 되면 사고 모돈 및 이유후 발정지연돈이 적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더위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모돈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돈들을 신속히 정리하여 여름철 모돈의 번식성적 저하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1. 방역체계 점검의 달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더위와 싸워야 했던 양돈장에서는 환절기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1) 온도관리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게 되면 돈사내 온도 또한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인위적으로 맞추어 주려는 노력은 돼지의 항병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크

게 도움이 된다. 돈사내 일교차 관리가 소홀한 관계로 호흡기 질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 분만사, 자돈사의 하루 중 일교차는 5도 이내, 그리고 육성 비육사 및 임신사 등의 성돈사도 가급적 온도변화가 없는 것이 좋으나 10도 이내로 맞추어 주면 무난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돈사별 온도계의 설치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최고최저 온도계)

또한 섯바람에 의한 온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해준다. (출입문, 원치커텐 등의 틈새 밀봉, 섯바람 많은 출입구 부근의 돈방 칸막이는 밀폐시킨다.)

2) 습도관리

온도와 더불어서 호흡기 질병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후 조건으로 습도가 있다. 대개 건조한 상태가 문제시되므로 적정 습도인 60~80% 를 유지하도록 한다.

돈사내 통로에 물을 뿌려 놓거나(특히 야간에) 또는 소독을 자주 하는 등 가습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습도계의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가끔 환기 불량으로 인해 돈사내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환기불량으로 인한

과습은 오히려 돼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3) 환기

9월부터는 여름철 보다 돈사개방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야간에) 또한 습도 저하로 돈사 내 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가스 및 먼지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호흡기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환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비를 철저히 해 놓도록 한다.

4) 기타 사양관리

▶ 돼지 입식전에 빈 돈방의 수세,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오염된 돈사 및 돈방에 어린돼지가 입식되면 질병의 피해가 증가된다.

- 특히 환절기에 돈방 소독이 안될 경우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

- 밀사는 돈사내 병원균의 수를 증가시킨다.

- 위축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 증체를 저하 및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5) 백신접종

무더운 여름철에는 돼지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치게 되므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거나 또는 아예 생략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때 백신접종이 안된 돈군들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각종 질병에 매우 감수성이 높아지게 되어 쉽게 설사나 호흡

기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9월 이후를 대비한 백신접종은 이미 여름철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간혹 여름에는 기본적인 백신(호흡기, 장염 등)조차 접종을 안하다가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접종을 시작하는 농장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다. 기본 백신은 연중 지속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한다.

▶ 모돈과 웅돈에게 접종하는 계절 백신의 접종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다. 특히 여름을 나면서 후보돈 교배가 많았던 농장은 백신 접종을 더욱 철저히 한다. (TGE, 호흡기)

▶ 접종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백신 접종 방법의 차이에 따라 면역 형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한다.

6) 구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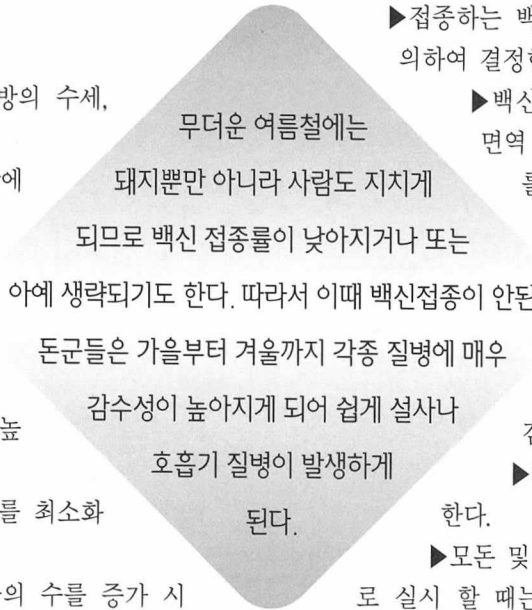
▶ 여름철 청초급여 및 방목 등으로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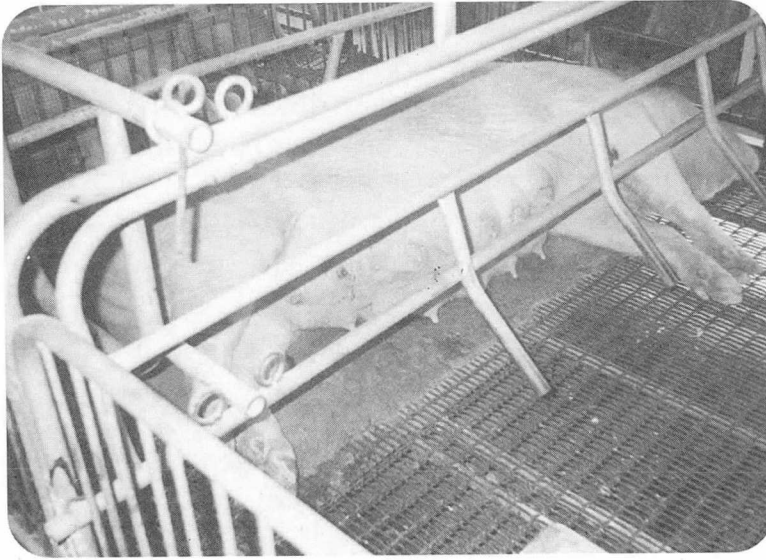
▶ 내외부 구충을 동시에 실시 한다.

▶ 모돈 및 웅돈의 내부 구충을 계절별로 실시 할 때는 구충을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7) 항생제 클리닝

여름철 더위에 지친 돼지들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병의 완화 즉 체내에 감염되어 있는 병원균의 살멸을 위해 항생제의 흡수 또는 사료첨가가 필수적이다. 항생제의 선택과 투여방법, 그리고 투약기간 등의 결정은 수의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비육 말기를 제외하고 1차로 전 돈군에 동시에 투약하도록 한다. 그 후 농장의





9월로 접어들게 되면 사고 모돈 및 이유후 발정지연돈이 적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더위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모돈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돈들을 신속히 정리하여 여름철 모돈의 번식성적 저하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건에 따라 2차 클리닝을 결정한다.

▶가급적 문제되는 호흡기 질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해 둔다.

▶항생제 클리닝 전에 양돈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약제 선정과 투약방법, 투약기간 등을 사전에 결정해 놓는다.)

▶번식돈 전체와 육성돈(출하 1개월 전의 비육돈은 제외)에 약제 투약.

▶음수투약 시설을 설치한다. (질병발생시 사료섭취량이 저하되므로 사료첨가 보다는 음수투약이 효과가 탁월함)

8) 소독

1일 1회 소독을 정착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독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소독기를 각 돈사별로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하

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인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 실시한다. 소독약은 2~3종류의 다른 제제를 선정하여 교대로 사용하며 소독약은 희석 배율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희석배율을 준수한다.

9) 도체검사 및 혈청검사

연 2회, 즉 초봄과 늦여름에는 한 번씩 비육돈의 도체 검사와 모돈 및 자돈, 육성돈의 혈청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농장의 문제되는 질병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질병발생 양상을 예측하여 질병 컨트롤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정확한 약품의 선정과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 작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농장들은 백신접종 및 약제 클리닝을 하기 전에 도체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동안 비육돈의 증체율이 떨어졌던 농장.

▶여름철에 잔 기침이 많았던 농장.

▶그 동안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농장.

▶모돈 및 비육말기돈에서 폐사가 있는 농장.

▶기존의 백신 및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장.

양돈장에서의 방역관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병원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2. 문제모돈 및 성적저하 모돈의 신속한 갱신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양돈은 엄격한 모돈 도태기준이 요

구되는 추세이므로 다음의 사항들이 농장별로 가급적 철저히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모돈의 도태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

1) 모돈의 도태기준

- 3회 연속 불임돈이나 과비된 불임돈은 산차에 관계없이 즉시 도태한다.
- 2회 이상 연속 유산한 모돈
- 3산 이상 모돈의 성적이 농장의 초산돈 평균 성적에 미달 할 때
- 7산 이유모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태를 원칙으로 한다.
- 이유후 40일 이상 발정이 지연된 무발정 모돈
 - * 경산돈 : 30일 ~ 40일 까지 무발정시 도태
 - * 초산돈 : 40일 ~ 50일 까지 무발정시 도태
- 사고후 (불임, 유산) 40일 이상 무발정인 모돈
- 지체불량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모돈
- 1산 ~ 3산 까지의 포유두수가 평균 7두 이하인 모돈
 - PHS (MMA) 증상을 보이는 모돈 (자돈균 일도 불량 포함)
 - 질탈, 항문탈, 난산, 무리한 조산을 한 모돈
 - 식욕부진, 식불등으로 위축되거나 포유능력이 없는 모돈
 - 2산 연속 식자벽이 있는 모돈 (압사 다발 포함)
 - 유방염, 맹유두가 3개 이상인 모돈
 - 체형이상(바디컨디션 불량), 운동실조, 심한 외상이 있는 모돈
 - 각종 질병으로 예후 불량시 폐사전에 신속히 도태
 - AR 양성 모돈 (외관증상 발현시 즉시 도태)

2) 모돈 도태시 유의 사항

상기 도태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상 도태율을 훨씬 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태 결정시 농장의 산차구성 및 갱신율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즉 도태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키다 보면 저산차 모돈의 집중적인 도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후보구입비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장기적으로도 산차구성이 좋지 않은 형태로 흐르게 된다.

▶모돈 도태율이 정상 도태율을 초과할 경우

이런 경우가 연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색출해야 한다. 즉 예를 들면 지체불량으로 인한 도태율이 높을 경우 모돈의 지체를 약하게 하는 시설이나 관리상의 문제 또는 종돈자체의 유전적 문제 등이 관여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불임과 같은 번식장애로 인한 도태율이 높은 경우 모돈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

▶정상범위 내에서 과감한 도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최근 모돈 도태율은 40 ~ 50%를 정상범위로 보고 있다. 이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후보돈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후보돈이 부족한 경우는 문제돈이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도태를 못시키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모돈회전율이 급격히 악화된다. 항상 상시모돈수의 10 ~ 12%의 후보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평상시의 세심한 사양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불임돈이나 이유후 발정 지연돈이 증가하더라도 발정체크와 발정유도를 위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들 문제돈들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되며 도태시점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모돈의 도태는 양돈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하는 가에 따라 농장의 생산성이 좌우되기도 한다. **양돈**

